

Statistical System of the CIS Countries

Joo-Hwan Kim¹⁾

Abstract

We introduce the statistical system of the Commonwealth Independence State(CIS) countries located in the Central Asia. At present, the level of the national statistics production system of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is very high and locate on just behind Japan among all asian countries, and they are also trying to reach the statistics quality level upto the advanced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To have the optimal Statistics production processing, we must understand the methodologies parts as well as the aspect of the macro statistics that can be applied to the country's economic plan. Like the history is repeated, it is valuable to look at the development history of statistical system of other countries one century ago. We study the relationship among CIS countries along with the history of Russian statistics development. It will be helpful to look and understand the statistical system of CIS countries including Russia to use their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y.

Keywords : Change of Russia's Statistical System, CIS Countries, National Statistical System, USSR

1. 서론

중앙아시아에 있는 CIS(Commonwealth Independence State) 국가들의 국가통계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한다. 현재 한국의 국가통계생산수준은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 다음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통계선진국가들의 수준까지 노력을 경진하고 있다. 통계생산과정은 방법론적인 미시통계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큰 줄기를 계획하고 계산하는 거시통계에 대한 발전도 이해하여야 한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과 같이 CIS 국가통계의 활용이나 우리통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보다 적어도 1세기 정도 앞서 발전했던 러시아 및 과거 러시아의 한 주(州)였다가 1991년 독립한 CIS 국가들의 통계시스템을 살펴보고 한다.

1)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E-mail : jhk@dongguk.ac.kr

우리 통계학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주로 접하는 한국의 통계청 및 기타 통계생산기관의 통계 및 지표는 그나마 다른 나라에서 제공되는 통계보다는 현상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통계의 개념해석이나 적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통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론 생산된 통계지표의 정의나 표준 및 신뢰도는 차지하더라도 간혹 비교된 결과의 해석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그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분석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이 어려워진다. 김주환(2001)은 이탈리아의 근대통계학사를 연구하여 이탈리아의 통계변천사와 통계시스템을 소개하였다.

2007년 7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올해에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에 선발되어 한 달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사마르칸드에 소재하는 사마르칸드 외대에서 IT 교육 및 문화교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동일한 사업으로 2005년에는 동티모르, 2006년에는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파견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경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동티모르 파견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2004년 동티모르의 센서스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김주환, 2005), 이어서 아프리카의 통계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던 중 논문의 마무리 단계에서 논문 파일을 분실하였다. 기억을 더듬어 논문을 복구하고 있으나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는 기억과 경험이 퇴색하기 전에 자료들을 모아 여행보고서와 같은 논문을 남기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해외 방문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그 나라의 통계 시스템의 특성을 나름대로 파악하여 정리 발표함으로써 통계학자들이 다른 훌륭한 이론이나 방법론의 논문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추가적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 달이라는 기간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통계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Nothing(無)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이제부터 보고 느낀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개요와 통계시스템의 소개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통계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USSR)의 통계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3장에서는 러시아에서의 통계변천과정 및 현 통계시스템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다시 현대로 돌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들의 통계시스템을 4장에서 소개하고 5장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2.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통계기구

아무-다리아강과 시르-다리아강 사이에 있는 고대의 요람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공화국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매혹적인 곳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의 유라시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양의 관문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 실크로드의 주요 중심지였으며 장대한 건축물들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몇몇 도시들이 있다. 주요도시로는 수도인 타슈켄트, 사마르칸드, 부하라, 코칸트, 테르메즈 등이 있다. 2007년부터 우즈베크어가 우즈베키스탄의 공용언어로 사용되지만 러시아어가 여전히 정부나 학교에서 사용되며 타지크어가 사마르칸트나 부하라에서 사용된다.

1991년 8월 31일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2년 3월 2일 유엔에 가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서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 동쪽으로 카자흐스탄, 남쪽으로 키

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모든 '스탄(나라 國을 의미)'으로 끝나는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옛 소련 중앙아시아 공화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며 중앙아시아의 헌병으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도 구소련이 여전히 이곳에 살아서 배회하고 있으며 끝없는 일련의 사소한 관료적인 불편함과 공무적인 다툼이 잔존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본적인 국가정보는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인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http://www.stat.uz/>)에서 살펴볼 수 있다.

1875년 러시아군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된다. 1917년 러시아혁명 후에 소련 공산당은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투르키스탄 자치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언하게 된다. 1924년 10월 우즈베키스탄이 선언되지만 다음 수십년동안 국가의 규모나 크기는 여러 차례 변하게 된다.

1991년 8월 31일 USSR이 붕괴한 후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공산당은 이름을 변경하지만 다른 것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대부분 진짜 야당진영의 경쟁선거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 지도자인 카리모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사실 독립이후 여행금지, 정치적 활동과 출판 금지, 사실상의 경찰국의 도입, 계속되는 폭력협박 덕분에 그의 권력은 커지고 있다. 1995년 선거에서 카리모프가 경쟁자 없이 승리하게 되고 2007년 현재에도 끄떡없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통계 주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또는 Goskomsta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는 공식통계정보의 수집 및 배포를 담당하는 공식 기관이다.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는 Qudratov Gafurzhon Sabirovich 의원장 산하에 방법론, 국가계정, 경제분과통계 담당, 통신, 사회, 무역 담당, 정보기술을 담당하는 세 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1월 위원회 산하에 통계연구 및 인력교육센터를 개소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정부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를 방문하였다. 방문 당일(8월 9일 목요일) 위원장의 생일로 모든 직원이 생일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담당관에게 도서관 방문이나 위원회의 안내 책자라도 구하려고 했으나 그런 자료들은 없고 도서관도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답이었다. 건물 내부를 구경하는 것도 상부의 허가사항이었다. 담당관과 다행히 30분 정도 우즈베키스탄의 통계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본부인 통계위원회에 약 30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지역까지 합치면 인력이 3,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통계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없고 3-4명 정도의 통계학 석사학위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인구총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규모로 볼 때 총조사를 위한 예산은 자체조달이 가능할 것 같으나 아직 계획이 없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의 건물로 타쉬켄트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은 새것이나 조직이나 정보의 개방에 대해서는 많은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건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다. 기차역에서 역무원에게 기차 시간을 물어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 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기본적인 국가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통계자료 및 보고서는 유료로 구입하여야 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속도도 느린 편이다. 한국과의 교류와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즈베크의 시장경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시장 개척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부재한다고 본다.

3. 러시아 통계시스템의 변천

우리에게는 소련(蘇連)이란 국명이 더 귀에 익숙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역사에서 한 시대를 차지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약자이다 (USSR : Union Soviet Social Republic). 러시아 국명의 변천사를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러시아 국명의 변천

8세기	초기 동슬라브족 부족국 형태로 구성
9세기	키예프공국 수립
13세기	몽고 침략으로 킵차크칸국 지배
15세기	러시아제국으로 발전
19세기	시베리아 진출 남진정책 러일전쟁
1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셰비키혁명 • 러시아 황제 폐위 - 국명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칭 • 16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큰 영토는 러시아 공화국 (이 당시 16개 공화국은 미국의 주(state)로 보면 됨)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연방이 해체되고 구소련 구성국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 • 구소련의 외교·군사 대외권을 러시아공화국이 승계(당시 대통령 엘친)

즉 러시아라는 국명은 오래된 것인데 볼셰비키 혁명 때 없어졌다가(연방 구성국으로 전략) 소연방 해체 후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다음 러시아에서 통계의 역사는 II. Eliseyeva and B.C. Ploshke (1990)의 "The History of Statistics"의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러시아의 주 통계시스템이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경로를 거쳤다. 이

의 역사는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오랜 기간의 농노제도의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세기 말엽 자유기업의 부활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는 러시아 통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인식의 측정과 경제상태 그리고 공공생활을 반영하였다. 이 기간에 몇 가지 중요하고 흥미있는 과학적 발전이 있었다.

1802년 9월 8일(새로운 달력으로는 9월 20일) 러시아 황제는 장관에게 통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이 날부터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통계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기구와 조직이 만들어졌다.

19세기 초에 경영시스템의 개혁이 있었다. 새로운 경영기구와 함께 통계생산시스템에 변화가 있었으며 Gubernias(provinces)들이 제출한 보고서들이 보관되었다. 1811년 정치부(the Ministry of Police)안에 통계부처가 설립된 이후 러시아 통계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1860년 초까지 주 통계기구의 방법론과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1861년의 개혁 전까지 깊이 있는 통계적 연구가 이루어 졌다.

개혁 후 1861년-1917년 기간 동안에는 정부와 zemstvo(지역 수준의 행정구역) 통계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방대한 통계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지역 통계학자들이 러시아의 재건 경제를 관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 시대의 통계과학은 이론적인 문서화를 통해 새로워지고 수리통계학의 일반 개념을 정교하게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초기 소비에트 기간(1917-1930)의 통계는 많은 특별한 센서스와 통계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처음으로 국가경제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외국통계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의견, 개념, 이상의 다원주의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는 다른 모든 가치들 위에 군림하는 특정가치, 중심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의 다양한 가치가 인간 삶의 본질이라고 보는 철학 방법론을 지칭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30년대의 행정적 관료주의 시스템(administrative bureaucratic system)은 경제학자나 통계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소비에트 통계의 발달은 지연되었다. 이 기간 동안 통계는 분석적인 기능은 무시되고 현재 경제계획의 적용을 찬양하고 조작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이용되었다.

대애국전쟁(the Great Patriotic War : 1941-1945) 기간 동안 통계학은 노동과 자원의 재고 문제 및 시베리아의 동쪽 국경지역으로의 노동력의 이동제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전쟁 후 통계의 역할이 증대되어 수급표도 확대되고 지수방법(index method)이론도 더 철저해지고 경제 및 수리모형과 방법들이 더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현대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생활에 있어서의 급진적인 변화는 시장경제에 적용하기 위한 주(state) 통계의 불가피한 개혁이 예정되었다. 주 통계의 본질과 주요 발전방향은 국가의 역사와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면에서 국가경제의 목표와 운영방법에 영향을 받았다.

현재의 러시아 주 통계는 정보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적용되는 복잡한 문제까지도 포함한다. 현재의 주(state) 통계의 주요 개편방향은 1995년 11월에 개최된 the All-Russian Conference of Statisticians에서 러시아의 Goskomstat의 의장에 의해 정해졌다.

러시아에서 가장 최근의 인구센서스는 2002년 8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러시아 연방의 통계 주(state) 위원회인 Goskomstat에서 수행하였다. 이는 현대 러

시아에서 처음 실시한 공식 센서스이며 러시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센서스 조사로부터 지역, 성별, 연령별, 결혼 상태에 따른 인구규모 및 구성, 출생률,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통계, 교육, 수입원, 산업과 직업에 따른 실제고용 경제 통계, 가구, 주택 및 거주 통계, 언어, 시민권 종류, 인종 구성 등의 문화 통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러시아의 통계정보는 러시아 통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ks.ru/>)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의 내용은 러시아어로 되어있으며 제한적이기는 하나 영어로도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러시아 통계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국가통계로는 국가계정 시스템의 주요지표(Main Indicators of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산업생산지표(Indices of Industrial Production), 노동시장(고용, 실업자 및 임금수입), 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 인구통계가 있다. 아직까지는 경제통계에 치중하고 있으며 사회통계나 정보기술통계와 같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통계는 공식통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4. CIS 국가의 국가통계 시스템

독립국가연합 CIS(Commonwealth Independence State)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경제 공동체를 말하며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현재 CIS 공동체는 아제르바이젠(Azerbaijan), 아르메니아(Armenia), 벨라루스(Belarus), 그루지아(Georgia), 카자흐스탄(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몰도바(Moldova), 러시아(Russia), 타지키스탄(Tajiki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우크라이나(Ukraine)의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CIS 국가들의 영역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Image:CIS_Map.png

CIS 회원국 각각의 통계기구(기관)는 다음 <표 2>의 각 홈페이지로부터 법적 근거나 조직, 조사통계의 종류, 출판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의 속도도 느리고 제공하는 정보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아르메니아의 공식 통계시스템은 1921년 USSR 초기에 구성되었으며 1990년까지 아르메니아 중앙통계국의 통계업무는 USSR 중앙통계국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수행되었다. 1990년 이후 아르메니아의 통계국은 정부의 감독 하에 국가의 통계업무를 책임

지고 담당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의 기능을 갖추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아르메니아의 국가통계서비스(the National Statistical Service)로 다른 주 국가들과는 독립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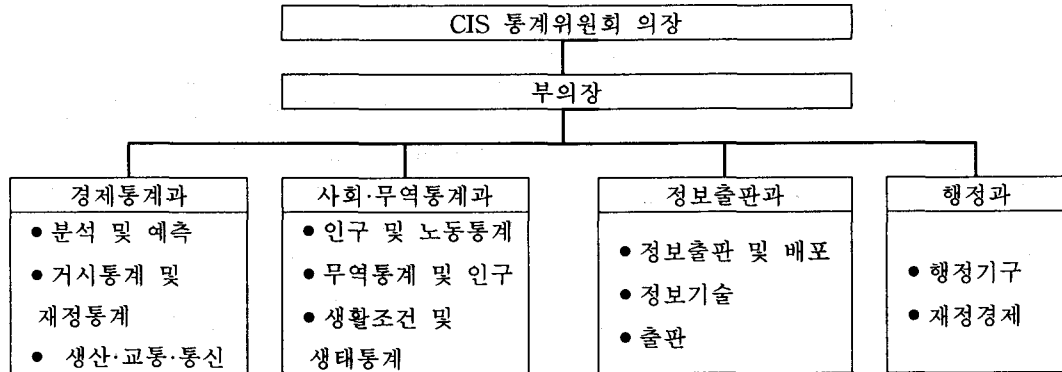
그루지아에서 처음으로 통계를 수집한 것은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와 18세기에 인구조사 자료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1918년 11월 15일에 농림부 안에 임시적으로 통계국이 만들어졌으며 통계국의 기능은 농업조사를 위한 조사도구의 개발, 유효농지의 집계 및 배분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1919년 7월 25일 법령에 의해 공화당 통계위원회가 농업부 안에 결성되었으며 위원회는 국가의 중요한 모든 통계적인 일을 맡게 되었다.

<표 2> CIS 국가들의 통계시스템

	국가	통계기구	홈페이지 주소	비고
1)	아르메니아 Armenia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http://www.armstat.am/	
2)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State Statistical Committee	http://www.azstat.org/	
3)	벨라루스 Belarus	Ministry of Statistics and Analysis	http://belstat.gov.by/	1999년 인구조사
4)	그루지아 Georgia	State Department for Statistics	http://www.statistics.ge/	2002년, 2010년 인구센서스
5)	카자흐스탄 Kazakhstan	the Agency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http://www.stat.kz/	2009년 인구센서스
6)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National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Kyrgyz Republic	http://www.stat.kg/	
7)	몰도바 Moldova	Department for Statistics and Sociology	http://www.statistica.md/	
8)	러시아 Russia	Russian State Committee for Statistics	http://www.gks.ru/eng/	
9)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홈페이지는 없고 연락처 이메일 주소만 있음	Associate member of CIS
10)	타지키스탄 Tajikistan	State Statistical Committee	http://www.stat.tj/	
11)	우크라이나 Ukraine	State Statistics Committee	http://www.ukrstat.gov.ua/	영문페이지 오류
12)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Ministry of Statistics / 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http://www.stat.uz/	

CIS 통계위원회(Statcommittee of the CIS)는 CIS 국가의 통계기구 활동을 협력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에 모스크바에 설치되었으며 공동으로 통계데이터베이스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 기구는 CIS 국가들의 사회·경제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공식기구이며 CIS 국가들의 국가통계에 대한 내용은 웹상의 Interstates Statistical Committee of CIS(<http://www.cisstat.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CIS 통계위원회의 조직은 <표 3>과 같다.

<표 3> CIS 국가의 통계위원회 조직 구조



1991년 소련붕괴이후 CIS 국가들의 요약 통계는 CIS Stat Committee(2005)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책은 CIS 탄생 15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것으로 CIS 국가들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을 담고 있다. 주요 지표들에 대해 간단한 방법론적 설명을 하고 있으며 영어판과 러시아판 두 종류가 있다.

CIS 통계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러시아에서 하고 있으며 본부도 모스크바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USSR 시대의 통계생산 구조를 대부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나 유럽 가까이 위치한 회원국들은 점차로 독립적으로 통계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표 3>에서 각국의 통계기구 명칭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나 키르기스스탄은 국가(national) 통계기구 명칭을 사용하나 아제르바이젠, 그루지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독립된 국가의 명칭대신 주(state) 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 역시 1992년 시장경제로 체제이행의 경제정책수립을 하면서 IMF로부터 지속적인 정책조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IMF 차관제공을 전제로 구체적인 거시지표까지 목표치로 부여받았다(조원호, 1988). 따라서 모든 CIS 국가들의 통계생산은 국제통화기금(IMF/Fund)의 특별자료보급기준(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 SDDS)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제와 금융정보를 생산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통계의 생산은 적시에 포괄적인 통계의 가용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추구하고 금융시장의 순기능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최근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미래의 국가 발전전략의 기초정보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국가와 같은 미개척지에 대한 기본정보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방문 경험을 토대로 중앙아시아의 CIS 국가들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연구하여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통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생산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CIS 국가들은 과거 소비에트연방의 한 지역이었으며 1991년 독립한 이후에 국가의 체제는 독립된 국가로 발전되고 있으나 아직 경제구조가 러시아에 많이 의존되어 있어 USSR 시절의 통계생산시스템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독립 후 18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 국가에서 통계시스템의 발전은 우선적 과제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것 같다. 많은 CIS 국가들의 통계정보시스템은 접근하기 어렵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달도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산주의 시절의 계획경제하에서는 통계가 갖고 있는 분석기능보다는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는 통계의 생산이었으며 지금은 IMF의 SDDS에 따라 통계를 생산한다고는 하나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국가통계들이 구소련의 시스템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했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통계위원회를 방문하였을 때도 다른 부서의 방문이나 도서관의 출입이 허가사항이었으며 동반 안내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나 허가가 불가능하였다.

과거 공산주의였던 소련과 관련국의 통계시스템을 관찰하면서 흥미있는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가졌던 국가들의 통계생산 시스템이나 시장경제로의 변화 후 통계생산의 다양성이나 정보의 공유 및 공개에 대한 비교를 해보는 것도 값어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통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잘 알 수 없으나 구소련이나 중국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는 장래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혼란을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김주환 (2001). A Short History of Italian Statistics Society, *The Korean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Vol. 8, No. 2, 515-530.
2. 김주환 (2005). 동티모르의 2004 인구주택센서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7, No. 5, 1905-1914.
3. 조원호 (1988).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IMF 경제정책, *학술심포지엄, 영산국제대학*.
4. CIS Stat Committee (2005). *15 year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1-2005) : Statistical abstract*.
5. Eliseyeva, I. I. and B. C. Ploshke (1990). *The History of Statistics, Finances and Statistics Publishers, Moscow*.
6. <http://www.stat.uz/>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7. <http://www.cisstat.com/> (CIS 통계위원회)

8. <http://www.gks.ru/eng/> (러시아 통계위원회)

[2007년 10월 접수, 2007년 11월 채택]